

사회서비스 '성인 돌봄' 이용률 가장 높다

복지부 작년 수요·공급 실태 설문

돌봄 22%·보육 13%·재활 8% 이용
70% "비용, 국가-이용자가 부담"
90%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밀접"

정부가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중 성인돌봄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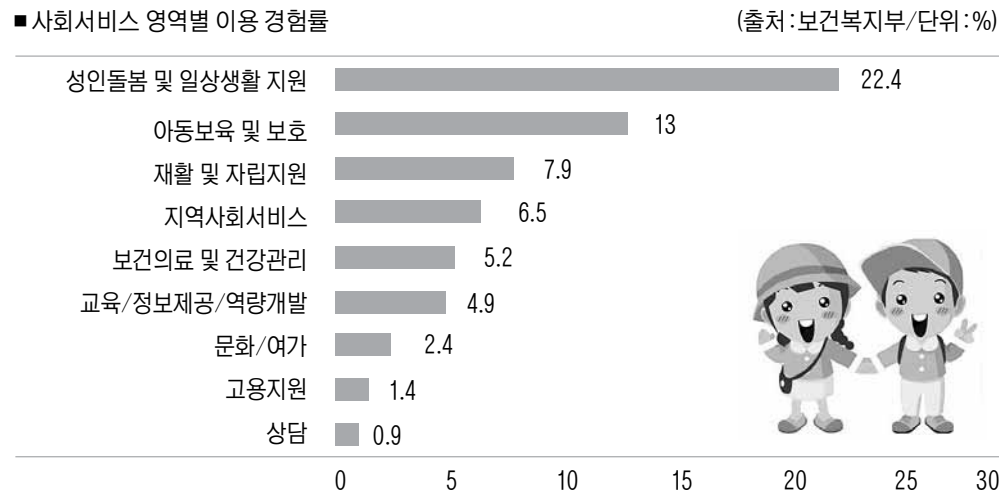
또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국가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인(노인·장애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이용률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서비스(2.4%) 등의 순이었다.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이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체육·스포츠·여행관광 등 '문화예술 문화 및 여가 서비스'라고 답했다.

이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생활시설 10곳 중 2.6곳은 2000년 이전에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회사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이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보호(13.8%) 등의 순이었다. 재정 여건을 보면 1억~5억 원 미만인 곳이 45.9%였으며 5000만~1억 원 미만인 곳은 16.7%에 달했다. 월 평균 총 고용인원은 16.7명이었으며 직접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98%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항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한 서비스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78.8%)를 포함한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

제공(76.3%),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69.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추가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91.9%가 공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모두에 대해 전체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부의 사회서비스 가운데 '성인 돌봄'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따뜻한 세상 만들기 동참해주세요”

광주 남구, 매일 복지후원 100계좌 모금 운동... 16개洞 오늘 협약식

광주시 남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6개동(洞)에서 매일 복지후원 계좌 100개를 발굴하는 모금 운동에 나선다.

21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22일 남구청 6층 회의실에서 '동별 복지공동체 나눔 실천운동을 위한 연합모금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식에는 남구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와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식 이후 남구 관내 16개 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나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소액 모금운동이 추진된다. 남구는 동별로 매일 100개 후원계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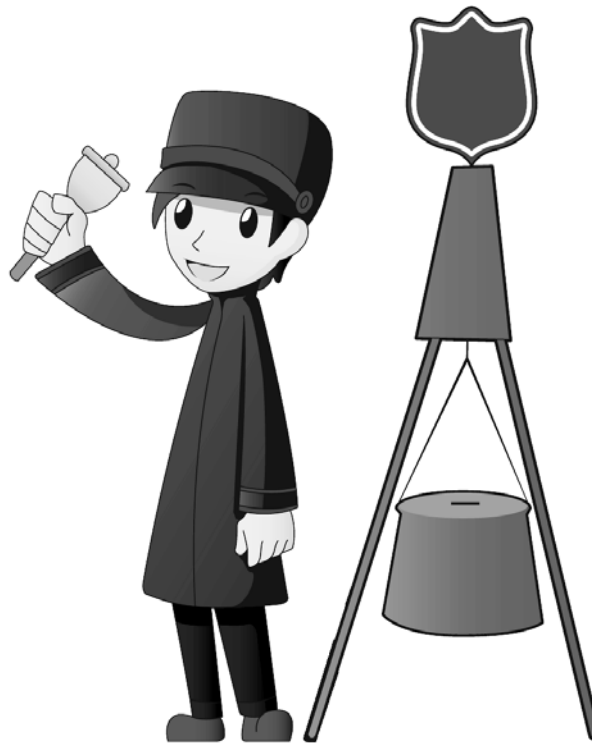
계좌당 5000원)를 목표로 잡고 있다.

앞서 양림동과 효덕동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동 주민센터와 동 복지호민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힘을 합해 연합모금 운동을 전개, 이날 현재까지 154개의 복지후원 계좌를 모았다.

또 매일 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등 음식물을 전달하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 및 책상, 걸상 지원, 의료 지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후원을 이끌어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

광주 서구, 복지관 등 연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광주시 서구는 19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한 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에 따르면 구는 18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동원, 매주 위기가정 세대를 방문한 뒤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관·민간기관 및 단체·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해 위기가정 등을 발굴한 뒤 해당 세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이달 초 홀로 사는 한모(49)씨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원비 지원해줬다. 또 형편이 어려운 한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뒤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인 통합사례관리를 더 확대할 것”이라며 “질병·질망 등의 위기에 빠져있는 세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입장/교육비등 1200만원
- ▶ “돈” 빌려 주실 분! 1순위 근저당으로 보장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